

##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 영 분\* · 김 유 순\*\*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가 실직자<sup>1)</sup>와 가출 실직자<sup>2)</sup> 두 집단에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실직에 대한 자신의 감정 이해, 가족관계의 변화 이해 및 가족 관계 개선, 인지 재구조화를 통한 우울 감정의 감소, 이를 통한 자신감 고취, 자기주장 훈련, 구직 기술 습득 등이었다. 자기주장 정도, 가족관계, 우울정도에서의 변화를 사전 사후 검사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했다. 재가 실직자 집단에서는 자기주장 정도에 있어서 사전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가출 실직자 집단에서는 가족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보여 주었다. 집단 과정에 대한 질적인 분석도 행해졌다.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프로그램의 개선점이 논의된다.

### I. 문제 제기

일반적으로 위기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사건에 의해서, 개인의 균형된 삶의 평형이 깨질 때 일어난다고 본다. 즉, 긴장과 불안이 최고도에 달한, 그리고 그 개인이 평소에 균형 잡던 방안이 작동하지 않는 불평형 상태를 위기라고 할 수 있다(Golan, 1978).

위기(危機)라는 한자말은 “기회와 위협”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한다. 즉, 위기는 한 편으로는 개인에게 있어서 위협하다고 인식되는 불평형 상태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 이에 잘 대처했을 때에는, 그 경험으로 인하여 개인이 발전할 수도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Golan, 1978). 그러나, 평소의 삶의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어진 때이므로 삶의 균형이 잡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직이라는 위기에 처한 개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모든 가능한 대처 방안들을 동원하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이 연구에서 재가 실직자는 집에서 가족과 동거하는 실직자를 의미한다.

2) 이 연구에서 가출 실직자는 가출하여 노숙자 합숙소나 실직자 쉼터 등에서 임시로 거주하거나 노숙하는 실직자를 의미한다.

여 실직이라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개인적 자원들을 동원해야 하며 심리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의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물질적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직자나 실직 가정의 심리사회적인 고통을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다. 실직자들은 실직으로 인해 정신적, 심리사회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실직 가정들은 가정불화와 가족 성원간의 갈등, 심지어 가족 해체까지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실직자와 실직자 가정이 고통을 경감하여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직자와 실직 가정의 심리사회적 곤경을 다룰 수 있는 위기개입 모델에 근거한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에는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은 없으며,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이란 실직자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은 실직이라는 위기에 처한 개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교육, 훈련 하므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개인적 기능, 가정 내에서의 기능, 사회에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재가 실직자 집단과 가출 실직자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은 실직한 개인과 가족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유용한 개입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 최초의 구조적 대량 실업 사태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나 그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실제 실직자 집단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평가한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이고 실직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원조를 하려고 하는 다른 전문직에서도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II. 선행 연구

구미에서는 80년대 초반에 경제 불황으로 장기 실업이 일반화되면서 사회복지, 상담 심리, 정신의학 등에서 실직자들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직자들을 위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실직자를 위한 개입방안에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고 있다. 첫째, 실직자를 위한 개입방향이나 개입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는 문헌이다. 둘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된 개입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문헌이다. 셋째는, 개입프로그램을 실제로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연구한 문헌이다.

첫째 부류에 해당하는, 개입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문헌은 매우 많으며(Abott, 1995; Biegel, Cunningham, Yamatami & Martz, 1989; Cramer & Keitel, 1984; Donovan et al., 1987; Fineman, 1983; Finley & Lee, 1981; Keefe, 1984; Krystal et al., 1983; Macarov, 1988; Mallinckrodt & Bennett, 1992; Mallinckrodt & Fretz, 1988; Pryor & Ward, 1985; Steinweg, 1990) 대체로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논한 후 이에 따른 개입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에 관한 자세한 것은 김유순, 이영분, 1998을 보시오).

둘째 부류에 해당되는, 구성된 개입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문헌으로는 셋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Kieselbach & Lunser, 1990; Maida, Gordon & Farberow, 1989; Sunley & Sheek, 1986), 실직자를 위한 정신 건강 상담 모델과 사례를(Maida, Gordon & Farberow, 1989) 제시하거나, 미국의 가족 서비스 기관 연합체인 Family Service America의 회원 기관들의 실직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을 소개하거나(Sunley & Sheek, 1986), 독일 실직자들을 위한 위기개입적 성격을 가진 심리사회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Kieselbach & Lunser, 1990). 그러나 이 세 문헌은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며 그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고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세 번째 부류인,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한 문헌으로는 단 하나(Caplan, Vinokur, Price & van Ryn, 1989)를 찾을 수 있었는데, 미국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이 1982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재까지 10여년간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Price, Fridland, Choi & Caplan, 1997). 이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의 목적은 실직자의 정신 건강 저하를 예방하고, 구직하는 사람들의 동기의 상실을 예방하여, 높은 질의 재취업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미국 동남부 미시간에서 928 명의 실업자를 무작위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배치하였고, 수십 명의 집단 지도자를 훈련시켜서 실험집단을 운영하게 하였다. 실험적 개입의 내용은 문제 해결 과정을 포함한 구직 훈련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사전 검사와 실험 후 1개월과 4개월 후에 사후 검사를 하였다.

실험의 효과로는 첫째, 재취업 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즉, 두 번의 사후 검사에서 모두 통제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의 비율보다 실험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 중 더 많은 비율의 사람이 취업되었다. 둘째, 실업자의 태도와 구직 행동 면에서 양쪽 사후 검사에서 모두 실험 집단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구직 능력이 더 높았다. 재취업의 동기 면에서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셋째, 정신 건강 효과 면에서는 실험 집단이 불안, 우울에서 낮았고, 자존심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 Ⅲ.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조

전 장에서 실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해 살펴 보았는데,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효과를 발표한 연구(Caplan et al., 1989)가 있었다. 실직자를 위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취업의 증진이고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우리 나라에 적용할 경우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그 점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와는 취업 시장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는 취업 기술 향상이나 취업에 대한 동기(motivation) 유지를 프로그램의 제1의 목표로 삼기 어렵다. 왜냐하면 동기가 높아도 취업이 쉽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좌절감만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맞는 실직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실직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가족간의 갈등 해소와 가족 유지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에서는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남녀의 역할 변화와 가족간의 갈등 해소, 개인의 정신 건강과 재취업(창업 등)에 동일한 비중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실직자를 위한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 문헌들의 (Abott, 1995; Biegel, Cunningham, Yamatami & Martz, 1989; Cramer & Keitel, 1984; Donovan et al., 1987; Fineman, 1983; Finley & Kee, 1981; Hooker, 1976; Keefe, 1984; Kieselbach & Lunser, 1990; Krystal et al., 1983; Macarov, 1988; Mallinckrodt & Bennett, 1992; Mallinckrodt & Fretz, 1988; Pryor & Ward, 1985; Roberts, 1995; Slaikeu, 1990; Steinweg, 1990) 연구를 통해 (자세한 것은 김유순, 이영분, 1998을 보시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는 개입방향은 본 논문의 분량상 다 다룰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실직자를 위한 본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내용을 크게 실직자들의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 해소 가족과의 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인지의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 자기주장 훈련(Assertiveness Training), 자조 집단 형성, 이완 훈련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6회에 걸쳐 매회 2시간씩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에는 “나의 표현”(I-message) (Gordon, 1974; 62-102)기법과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 (Gordon, 1974; 103-138)기법의 사용을 활용했으며, 인지의 재구성 작업은 A. Ellis가 개발한 합리적 정서 치료(Rational Emotive Therapy)를 적용하였다. 이완 훈련은 시 낭송과 명상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였다.

집단 구성은 구직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등 각 기관을 방문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여 자발적인 참여자로 한다. 집단 형태는 폐쇄 집단으로 하며 주1회, 1회에 2시간의 집단 활동을 한다. 활동은 프로그램 내용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토론 과정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한다. 집단의 진행은 2명의 집단 지도자가 프로그램 내

용에 따라 주 진행과 보조 진행의 역할을 교대해 가며 진행한다. 매회의 집단 과정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집단 초기에는 서로 인사하고 지난주의 내용과 적용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의한다. 중간 단계에서는 그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종결 단계에서는 그날의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를 부여하고 긴장 이완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

매 회기에 수행할 구체적 위기개입 집단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위기개입 집단 프로그램

횟수	목표*	집단 활동 내용
1회	1. 집단과 집단 성원 이해 2. 실직에 대한 감정, 행동이해	1. 프로그램의 목적, 진행 방법, 전반적인 내용 등의 안내 2. 집단성원의 자기 소개, 참석 동기 발표, 관계 형성 3. 실직에 대한 감정 표현 및 변화된 행동에 대한 인식 4. 명상 (음악듣기와 시낭송)
2회	1. 가족 관계 개선 2. 의사소통 기술 향상	1. 개인과 가족의 변화에 대해 토의 2. 아버지(남편) 역할에 대한 기존 개념과 새로운 개념 이해 및 그에 대한 토의 3. 의사소통의 기술 습득 4. 의사소통 장애요인과 건설적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검토 5.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을 위한 역할 놀이 (비디오 카메라 활용) 6. 명상 (음악듣기와 시낭송)
3회	1. 우울감 해소 2. 자신감 고취	1. 합리적 정서치료: 비합리적 생각의 인식, 자기 패배적 진술을 만드는 사고 습관의 인식 2. 비합리적 사고에 대해 성원들의 논박을 통해 합리적 사고 유도 3. 명상(음악듣기와 시낭송)
4회	1. 우울감 해소 2. 자신감 고취	1. 인지모델링과 인지 시연 통한 합리적 사고 연습 2. 명상(음악듣기와 시낭송)
5회	1. 자기주장 능력 향상 2. 구직기술 습득	1. 자기 주장 훈련 1) 자기 주장 철학 원리와 자기 주장권에 대해 검토 2) 역할극 (자기 주장 상황과 면접 상황- 카메라로 촬영하여 집단 성원의 피이드백 수용) 2. 구직 기술 훈련- 면접의 요령, 이력서 작성, 자기 소개서등의 작성, 일에 대한 관심 표현 등에 대한 기술 훈련 3. 명상(음악듣기와 시낭송)
6회	1. 자조집단 형성	1. 민주적 회의 절차에 대한 이해 2. 자조 집단 형성-민주적 회의절차 과정의 시연을 통해 자조 집단 형성 3.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4. 명상 (음악듣기와 시낭송) 5. 종결

\* 상기 목표 이외에 긴장 이완의 목표를 매회에서 다루고 있다.

첫 회에서는 집단 성원간의 관계 형성과 집단 성원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며, 실직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여 집단 성원들이 실직이라는 상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상황임을 인식하게 한다. 이를 통해 실직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한다. 또한 실직으로 인해 겪는 우울,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이를 극복한 방법과 구직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집단 성원들의 곤경 극복 방법과 구직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 한편 감정의 변화에 따른 행동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변화된 행동의 배경(원인)을 이해하게 한다.

2회에서는 가족과의 관계 향상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가족 내 역할 변화를 찾아내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性)에 따른 정형화된 가족 내 역할 개념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유도한다. 특히 남편은 경제적 공급자로서의 역할 수행에서만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사고에서 전환하여, 남성도 한 인간으로 또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가치를 둘 수 있음을 논의함으로써 경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당분간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가치 있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 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버지 상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돕는다.

한편 실직 기간을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도록 가족관계의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실시한다. 가족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에는 “나의 표현”기법과 “적극적 경청”기법을 사용하며,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과 건설적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토의한다.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을 역할 놀이를 통해 실시한다.

3회에서는 Ellis에 의해 개발된 합리적 정서 치료를 적용한 인지 재구성 작업을 우울 증상의 감소를 목적으로 실시한다. Ellis의 기본적인 이론은 정서와 행동은 어떤 상황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신념, 기대, 전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아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은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고,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을 많이 가질수록, 상황에 대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지며, 따라서 감정 면에서는 부적절한 감정을 갖게 되고 행동 면에서는 역기능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합리적 정서 치료는 A-B-C-D-E 패러다임으로 요약될 수 있다(Ellis, 1996). 인간은 어떤 사건(A-Activating events)에 접하게 되며, 이 사건에 접할 때 어떤 믿음(B-Beliefs) 또는 일련의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흔히 이런 믿음들은 비합리적인 것들이기도 하다. 비합리적인 진술이나 믿음을 떠올린 결과(C-Consequences), 개인은 부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

다. 합리적 정서 치료자는 개인에게 떠오른 믿음, 생각들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 비합리적인 믿음들에 대해 논박(D- Disputing)하도록 도와준다. 이 때 합리적인 자기 내부의 진술과 비합리적인 진술간의 차이를 배우게 하는데 초점을 둔다. 성공적인 치료의 결과로 비합리적인 믿음을 제거하게 되고 효과적인(E - Effective New Philosophy, Emotion, and Behavior) 신념, 정서, 행동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 개인들이 갖는 흔한 오해들을 설명한다. 또한, 자기 패배적인 내적인 진술과 자기 향상적인 내적인 진술(Ellis, 1996)의 예들과 차이점들을 소개하고, 자기 패배적 진술을 하게 만드는 사고 습관 등을 알려준다. 그리고 자기 패배적 진술을 자기 향상적 진술로 바꾸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이 집단 회기에는 합리적 생각 기록지를 배부하고 다음 회까지 떠오르는 비합리적 생각과 이에 대한 스스로의 논박을 기록하고 이로 인하여 변화된 생각을 적어 오는 과제를 준다.

4회에서는 전 시간의 과제인 역기능적 생각을 기록한 것을 발표하고 개인이 적절하게 논박하지 못했던 것은 집단에서 함께 논박하도록 한다. 또한 계속해서 떠오르는 자기패배적 생각들이 있는 성원들을 위하여서는 집단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인지모델링(Cognitive Modeling)"(Rose, 1989)을 통하여 합리적 사고의 과정을 보여 주는 방법을 활용한다. 이 때 비합리적 생각을 떨쳐 버리는 방법으로, "사고 정지(Thought Stopping)" 방법을 사용하여 원치 않는 생각을 떨쳐 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그 후에 성원들은 "인지 시연(Cognitive Covert Rehearsal)"을 통하여 지도자가 보여준 사고 과정을 연습한다.

5회에서는 구직 활동 시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자기주장 훈련을(Assertiveness Training) 실시한다. 먼저 어감(語感)에서 문화적 차이가 느껴지는 자기주장(Assertiveness)이란 개념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자기주장이라고 할 때의 공격적인 의미가 아니며 적절한 자기 권리의 표현과 추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의사소통 훈련을 실시한다. 비주장, 공격성, 자기주장의 세 가지 의사전달 방식의 언어적/비언어적 특징과 각 의사전달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각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대인관계에서의 결과를 도표화 한 유인물을 사용하여 설명과 토의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역할 연습을 실시한다. 또한, 구직 활동을 위해 구직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력서 작성, 자기 소개서 작성에 대한 요령, 자세, 몸짓, 복장, 시간 엄수, 일에 대한 열의와 직장에 대한 관심 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술들이다.

6회에서는 집단의 종결 단계로 자조 집단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자조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조집단 형성'이라는 회의 안건을 가지고 집단 성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회의 과정

을 거치는 동안 자연스럽게 자조집단이 형성되며 이 집단을 통해 공식적 집단이 종결된 후에도 집단 성원들이 서로 지지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회기에 대한 감정을 나누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자유로운 토의와 무기명으로 집단 진행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도록 한다.

매 회 주 프로그램이 끝나면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 이는 긴장의 이완을 도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음악을 듣게 하고 실직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시를 낭송함으로써 그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한다. 또한 매 회의 참석과 집단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 대한 격려로 지도자는 성원들에게 칭찬과 감사의 메시지를 주고 필요한 경우 과제를 부여한다. 집단 성원들 각자가 자신과 다른 성원들을 위해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매 회기를 종결한다.

## IV.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재가 실직자 집단과 가출 실직자 집단을 대상으로 5회에 걸친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5회에 모두 참석한 집단성원에 한하여,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의 구직 상황에서의 자기주장(표현) 정도, 우울 증상의 정도, 가족관계에 대한 자기 평가 정도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재가 실직자 집단은 복지관의 취업 정보 열람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9명이 참석하였으나, 취업 훈련(1명), 취로사업 참여(1명), 취업(2명) 등으로 빠지고 2명은 뚜렷한 이유 없이 탈락하여서 모든 회기에 참가한 사람은 5명이었고 이 5명만을 프로그램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가출 실직자 집단은 동일 복지관 내의 실직노숙자 자립 프로그램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16명이 참석하였으나 9명이 모든 회기에 참석하였으므로 이 9명만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대상자로 삼았다.

### 2. 측정 도구

#### 1) 구직 상황에서의 자기주장 정도

구직 상황에서의 자기주장 정도는 Becker(1980)에 의해 개발된 자기주장적 구직 질문지



(Assertive Job-Hunting Survey (AJHS))(Corcoran & Fischer, 1987: 93-94)를 사용하여 구직 상황에서의 적극성을 측정하였다. 자기주장적 구직 질문지는 구직 상황에서의 자기주장 정도를 - 즉,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상대 회사의 사람과 접촉하기 위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 등 - 측정하는 25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1점)"에서 "매우 아니다 (6점)"까지의 6점 리카드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 행동에서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는 .82 등으로 매우 좋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7로 조사되어 안정성 (stability)도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측정 결과는 Cronbach의 알파 계수 .78 내지 .85로 좋은 편이었다.

## 2) 가족 관계

가족관계의 문제는 Hudson(1982)에 의해 개발된 가족관계 척도(Index of Family Relations)(Corcoran & Fischer, 1987; 440-442)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들이 관계에서 가지는 문제의 범위, 심각도,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25항목 척도이다. 가족관계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가족 내 스트레스의 전반적인 척도로도 간주될 수 있다. 각 문항은 "드물거나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대부분 또는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카드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의 문제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30 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응답자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고 30 이하는 그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75이상이면 가정 폭력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적 신뢰도는 .95로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orcoran & Fischer, 1987;440-44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측정 결과는 Cronbach의 알파 계수 .86 내지 .90으로 우수했다.

## 3) 우울증상

우울증상은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우울상태 척도를(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ed Mood Scale (CES-D))(Corcoran & Fischer, 1987;118-119)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일반인들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임상적 상황과 정신과적 상황에서도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척도다. 이 척도는 우울증상 중에서도 정서적 요소 즉, 우울한 기분 (mood)에 강조점을 두었고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거의 아니다 (0점)"에서 "거의 언제나 그렇다 (3점)"까지의 4점 리카드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이미 존재하던 타당도가 입증된 여러 우울 척도, 우울에 관련된 문헌에서 항목들을 뽑아 만든 척도이다. 내적 신뢰도는 일반 인구에서 .85, 정신과 인구에서 .90 등으로 좋으며 검사-재검사 상관 계수는 .51 내지 .67로 조사되어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pearman-Brown 신뢰도는 .77에서 .92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측정 결과는 Cronbach의

알파 계수 .69 내지 .77로 양호했다.

### 3. 분석 방법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각 개인의 자기주장 정도, 우울 정도, 가족관계의 정도의 차이를 알아냄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은 수가 적고 무작위 추출한 집단이 아니므로, 정규 분포 집단에서 나온 대표적 표본으로 생각할 수 없어서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특히, 첫 번째 집단은 그 구성원이 5명으로 매우 작은데 이렇게 샘플이 작은 경우에도 비교적 강력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Siegel & Castellan, 1988) Permutation Test for Paired Samples를 사용하였다. 둘째 집단의 크기는 Permutation Test에서의 수(手)계산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Siegel & Castellan, 1988) 또 다른 강력한 분석 방법인 Sign Test가 사용되었다. 유의 수준은 p값 .05수준 이하로 하였다. 집단 성원의 인구학적 특성과 심리사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 통계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또한 집단의 크기가 작은 관계로 양적 연구 방법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적인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고, 그 결과는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집단 성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중심으로 '집단의 변화 추이 분석' 장에서 다루었다.

## V. 결 과

### 1. 집단 구성원의 일반적 사항

<표 2>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재가 실직자 프로그램에 5회 모두 참석한 재가 실직자는 5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9.2세로 41세에서 59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5명이 모두 기혼이었다. 출가하지 않은 평균 자녀수는 1.5명이었다. 전직은 서비스직, 관리직, 사무직 전문직, 자영업, 기술직 각 1명씩이었다. 집단 성원 대부분 1997년 12월의 경제 위기 이후로 실직한 사람들이며 평균 실직 기간은 4.4개월로 2개월에서 8개월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3명으로 1명은 배우자의 수입, 1명은 고용보험이었고, 다른 1명은 판매 수익 및 가족의 보조, 2명은 전혀 가정 내에 수입이 없었다. 평균 교육 연수는 12.8년이었다.

<표 2> 가출 실직자 집단의 일반적 사항

ID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자녀수	전직	실직기간	가정내 수입유무
1	32	고졸	미혼	-	자영업	8개월	없음
2	45	무학	결혼	3	요리사	8개월	"
3	36	고졸	미혼	-	생산직	6개월	"
4	44	중졸	결혼	2	"	4개월	100만원(형제로부터)
5	45	초졸	미혼	-	요리사	6개월	60(책판매)
6	34	중졸	미혼	-	자영업	6개월	없음
7	45	고퇴	사별	1	요리사	3개월	약간
8	60	고졸	결혼(별거)	-	자영업	6개월	없음
9	41	고졸	결혼	3	생산직	8개월	"

<표 3>에 제시하는 바와 같이 2차 프로그램에 5회 모두 참석한 가출 실직자는 9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2.4세로 32세에서 60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4명이 기혼이었으나 이 중 한 명은 사업의 부도 이후 배우자가 가출하여 별거 상태였다. 사별이 1명이고, 나머지 4명은 미혼이었다. 출가하지 않은 평균 자녀수는 2.3명이었다. 전직은 생산직 4명, 요리사 3명, 자영업 2명이었다. 집단 성원 대부분 1997년 12월의 경제 위기 전후로 실직한 사람들이며 평균 실직 기간은 6.1개월로 3개월에서 8개월까지의 분포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의 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으로 1명은 형제에게서의 보조, 2명은 기타 약간의 수입, 나머지 6명은 전혀 가정 내에 수입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교육 연수는 9.2년이었다.

<표 3>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자기주장 정도, 가족관계, 우울정도의 평균, 표준편차, 분포도

	재가 실직자		가출 실직자	
	사전검사 평균	사후검사 평균	사전검사 평균	사후검사 평균
자기 주장	84.8 (SD= 4.7) 분포78-91	89.6 (SD= 5.7) 분포84-98	85.3 (SD=18.1) 분포66-117	84.1 (SD=20.1) 분포56-115
가족 관계	18.2 (SD=26.6) 분포 0-57	17.4 (SD=25.9) 분포 4-63	43.3 (SD=20.9) 분포 12-74	36.7 (SD=18.3) 분포 8-64
우울 정도	27.8 (SD=11.6) 분포 4-34	24.4 (SD= 9.6) 분포 7-32	24.8 (SD= 9.0) 분포 14-39	23.9 (SD= 8.8) 분포10-32

## 2. 심리사회적 상태

각 집단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얻은 점수는 다음과 같다. 자기주장 정도에서 재가 실직자 집단이 사전 검사 84.8 (SD=4.7) (RANGE 78-91), 사후 검사 89.6 (SD=5.7) (RANGE 84-98)이었고 가출 실직자 집단은 사전 검사 85.3(SD=18.1)(RANGE 66-117)사후 검사 84.1 (SD=20.1) (RANGE 56-115)이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재가 실직자 집단이 사전 검사 18.2(SD=26.6)(RANGE 0-57), 사후 검사 17.4(SD=25.9)(RANGE 4-63)이었고 가출 실직자 집단은 사전 검사 43.3(SD=20.9)(RANGE 12-74) 사후 검사 36.7(SD=18.3)(RANGE 8-64)이었다. 우울 정도에 있어서는 재가 실직자 집단이 사전 검사 27.8(SD=11.6)(RANGE 4-34), 사후 검사 24.4(SD=9.6)(RANGE 7-32)이었고 가출 실직자 집단은 사전 검사 24.8(SD=9.0)(RANGE 14-39) 사후 검사 23.9(SD=8.8)(RANGE 10-32)이었다.

자기주장 정도에서는 미국 대학생 중 대학의 취업 계획 센터에 등록한 일반 대학생의 AJHS 평균이 106점으로 보고되고 있는데(Corcoran & Fischer, 1988; 93), 위의 두 집단에서는 비슷하게 80점대로 미국의 경우보다 낮다. 그러나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두 나라의 비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단지 위의 두 집단의 평균 점수가 비슷하고 재가 실직자가 가출 실직자보다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주장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본다. 가출 실직자의 경우는 변화가 없다고 보아야 하겠다.

가족관계의 경우는, 이 척도 개발자에 의하면 30점이 가족관계에서 문제 있는 가정과 문제가 없는 가정을 구별하는 기준선인데(Corcoran & Fischer, 1988; 93) 재가 실직자의 평균은 18.2로 구별선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개인별로 보면, 재가 실직자 중에는 거의 가정 문제(SD: 표준편차)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이 되지만, 50이 넘는 사람도 2명이나 되어 재가 실직자 중에도 심각한 가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출 실직자는 재가 실직자보다 집단의 평균 점수가 43.3으로 훨씬 높았고 구별선보다도 훨씬 높아서 가출실직자 중의 다수는 가족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가족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은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지내지만 동거하지는 않고 있는 가출 실직자에서 더 많은 점수의 분량이 향상되었다.

우울의 경우는 미국 백인 일반인의 경우가 평균 8-9점, 정신과에서 진료 받는 우울증 환자의 평균 점수가 24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한국과 미국간의 우울증에 대한 임상적 정의의 차이를 염두에 두더라도, 양쪽 집단 모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우울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울 정도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우울 정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 4> 재가 실직자 집단의 일반적 사항

ID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자녀수	전직	실직기간	가정내 수입유무
1	41	고졸	기혼	2	서비스업	4개월	80만원 (부인)
2	58	고졸	기혼	2	관리직	4개월	-
3	45	고졸	기혼	1	전문직	4개월	80만원 (고용보험)
4	59	대졸	기혼	-	자영업	2개월	150만원(판매 및 가족보조)
5	43	고졸	기혼	1	기술직	8개월	-

### 3. 위기개입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위기개입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구직 상황에서 자기주장 정도 (Assertive Job Hunting Survey)와 가족관계 (Index of Family Relations), 우울 정도 (CES-D)에 있어 재가 실직자 집단과 가출 실직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재가 실직자 집단에서는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구직 상황에서의 자기주장 정도가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와 우울 정도에서는 사전 사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재가 실직자의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자기주장 정도, 가족관계, 우울정도

	Permutation Test for Paired Samples		
	N	p 계산	p 값
자기 주장 정도	5	1/2 <sup>9</sup>	0.03
가족 관계	5	5/2 <sup>9</sup>	0.16
우울 정도	5	7/2 <sup>9</sup>	0.22

\* p<.05

가출 실직자 집단에서는 <표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에 가족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장과 우울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6> 가출 실직자의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자기주장 정도, 가족관계, 우울정도

	Sign Test		
	N	number of fewer signs	p 값
자기 주장 정도	9	4	0.50
가족 관계	9	1	0.02*
우울 정도	9	4	0.50

\* p<.05

#### 4. 집단의 변화 추이 분석

앞 장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하여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재가 실직자 집단의 경우는 자기 주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 가출 실직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이 본 프로그램의 대상자의 수가 적으므로 양적인 분석에만 의존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서 집단 과정을 통한 성원들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성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 회에서는 집단에서 집단 성원들은 주로 실직 당시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 발표했다. 집단 성원들이 느꼈던 감정은 주로 「좌절」, 「허탈감」, 「증오심」, 「포기하는 마음 -무기력」, 「답답함」, 「우울」, 「자살 충동」, 「배반감」 등이 공통된 것들이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다. '18년 동안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고 회사만을 위해서 일 했는데 너무했다. 회사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다. 그룹 소유주에게 따지고 싶었으나 동료들이 말렸다. 다 쳐부수고 싶었다.' '가족은 돌보지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너무나 허탈했다. 그러니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게 되니 답답했다' '경제력을 잃게되니 무기력해 보인다. 가족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다.' 등이다. 특히 가출실직자 집단에서는 분노감정이 강하게 표출되었다. '죽이고 싶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또한 자살할 생각을 했다는 집단 성원도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집단 성원들이 가장 흔히 나타낸 행동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었다. 「과음」, 「하지 않던 얘기를 함(화젯거리가 달라짐)」, 「말수가 적어짐」, 「친구나 친척과의 접촉이 줄어들음」, 「사소한 일에 화가 나서 집어던지고 소리침」, 「부부 싸움」 등이며 신체적 증상으로는 「울화병으로 귀가 아픔, 머리 아픔, 숨을 못 쉬」 등의 행동변화를 보고했다. 가출 실직자 집단에는 「자살하기 위해 농약을 소지하고 다님」, 「자살하기 위해 소주를 한꺼번에 17병을 마심」 등 자살을 구체적으로 시도한 사람, 자주 우는 사람도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상호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 성원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집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서로 토의하게 했다. 집단 성원들은 「완전한 무기력 속에서 가족을 생각하니 책임감이 생겨서」, 「종교의 힘으로」, 「집에 있으면 가라앉으니 밖에 나가야 하고 그러면 뭔가 얻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형편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재산이라는 생각에」 등을 언급했으며 그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내용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다시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집단 활동을 통해 집단 성원들은 실직으로 갖게되는 심리적 어려움이나 변화된 행동이 그들 자신만의 것이 아니며 다른 많은 집단 성원들도 같은 혹은 유사한 상태라는 것에 안도하며 이러한 안도감은 다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집단 진행 과정에서 집단 성원들은 한 집단 성원의 표현에 공감도 하고 또 질문도 하면서 그들대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갔으며 재가 실직자 집단의 집단 성원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이 끝나고 계속 서로 얘기하기를 원했다.

2회에서는 가장의 실직으로 겪게 되는 가족의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 가족의 행동 변화에 대해 토의하고,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의사소통 기술』훈련을 실시했다.

먼저, 가족의 변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대체로 가족들은 가장의 실직 초기에는 자신들을 위로해 주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했다는 것이 공통된 얘기였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나면서 서로 감정 싸움이 빈번해졌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졌다고 했다. 가족이 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냐는 질문에 '표정이 우울해 졌다' '외부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다' '아내가 친척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나가라' '이혼하자'라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것들이 집단 성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표현했으며 가족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기분을 갖게 되고 이는 자신이 책임감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가족간의 갈등과 무시당하는 감정,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가출을 유발했음을 가출실직자 집단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출실직자 집단의 한 성원의 경우는 사업을 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히 살다가 부도가 나서 공장 문을 닫게 되자 부인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집을 나갔고 이로 인하여 30여년을 함께 살아 온 부인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집단 성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에 대해 토의하고 새로운 역할 개념을 인식하도록 했다. 즉 아버지는 경제적 부양자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한 인간으로 가치 있음을 교육했다. 이를 통해 역할 개념의 공유와 전환을 시도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실직 가정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꼭 남자만이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라고 30대의 젊은 집단 성원은 표현하고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는 50대 후반의 집단 성원도 있었으나 대부분 역할 공유와 전환에 공감하며 '이것을 집사람이 알아야 한다. 그들을 위한 집단은 안 하느냐?'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또한 집단 성원들은 실직 전에는 직장의 일만을 생각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만 바쳤는데 정작 실직을 하게 되니 정말 가정이 소중한데 결국 일도 가족을 위한 것인데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고 지낸 것에 후회를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구직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맘을 집에서는 몰라준다고 했다.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의 표현 기법과 적극적 경청 기법을 기초로 하여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실시했다. 듣기 훈련과 말하기 훈련을 역할 놀이를 통해 습득하게 했다. 듣기 훈련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집단 성원 중 '마음에 뭐가 가득 들어 있어 남의 얘기를 못 들겠어요.'라고 표현하였다. 몇 명의 집단 성원들이 이에 동의했으며 이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집단 성원들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기법을 가족 또는 대인 관계에서 적용시켜 보는 과제를 부여했다.

3회에서는 지난주 훈련받은 『의사소통 기술』의 적용과 지난주 생활에 대해 검토했다. 2회의 집단 활동 결과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만 짜증나는 게 아님을 알게 되어서 가족과 편하게 지냈다' '아내가 심한 말을 해도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어 심하게 다투지 않았다'는 집단 성원들이 있었다. '아이가 장난감을 치우지 않아 나의 표현 기법으로 말했더니 아이가 장난감을 치웠다. 정말 놀랐다'는 언급을 하는 집단 성원도 있었다. 가출실직자 집단에서는 '책을 사주지 않아 화가 났는데 끝까지 참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고 했고 이를 사례로 하여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재시도했다.

본 회기의 주 활동은 우울증상을 감소하기 위해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바꾸는 합리적 정서 치료(Ellis, 1996)에 근거하여 인지 재구조화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먼저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갖는 흔한 오해들(예: 왜곡된 자아상, 타인과 사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자기 패배로 이끄는 생각, 잘못된 이상형)에 대한 예를 담은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기패배적인 내적인 진술과 자기향상적인 내적인 진술의 예들과 차이점들을 소개하고, 자기패배적 진



술을 하게 만드는 사고 습관(확대해석, 파멸이라고 생각하는 것, 절대화, 예언화, 남의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경멸, 과도한 자기 요구, 중심화)을 소개하였다.

곧 이어 집단 성원들의 공통 경험인 실직 사건을 예로 들어 ABCDE 모델의 각 단계에 적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사고가 역기능적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였다. 이후에는 자기패배적 진술을 자기 향상적 진술로 바꾸는 연습을 한 후 성원들이 토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비합리적 사고를 바꿀 수 있었으며 집단 성원들은 긍정적인 사고나 행동을 제안해서 서로간에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예를 들어, 집단 성원 중 K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달라는 말을 못하겠다.” “친구는 나를 속이고 무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언급에 집단 성원들은 “친구에게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친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K씨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친구가 K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친구가 K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K씨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등을 언급하며 K씨에게 피이드백을 했고 K씨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에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 집단 성원들의 자존감 저하로 인해 갖게 되는 우울감을 해소 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집단 성원들은 초기에는 주로 자신의 무기력, 무책임, 무능력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후에는 집단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이 회기에서는 역할 놀이를 할 때 비디오 촬영을 해서 성원들로 하여금 역할 놀이에 참여한 사람에게 피이드백을 주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도록 했는데 역할 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자가 2회 때보다 많았으며 집단 토의도 활발했다.

숙제로 합리적 생각 기록지를 배부하고 다음 회까지 떠오르는 비합리적 생각과 이에 대한 스스로의 논박을 기록하고 이로 인하여 변화된 생각을 적어 오는 과제를 주었다. 원래 계획과는 달리 계획에서의 3-4회 내용을 3회에 모두 실시하였는데 이는 집단에 참여한 집단 성원들이 많지 않아 한 회에 활동을 할 수 있었다.

4회에서는 지난 회기의 숙제로 내 준 비합리적 생각에 대한 스스로의 논박에 대해 검토하고 성원들이 서로 지지, 격려하였다. 4회의 주 활동으로 『자기주장 훈련』을 실시했다. 긍정적인 자기 표현을 통해 구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이다. 구직 활동을 위해 구직 기술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했다. 예를 들어 이력서 작성, 자기 소개서 작성에 대한 요령, 자세, 몸짓, 복장, 시간 엄수, 일에 대한 열의와 직장에 대한 관심 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기술들이다.

자기주장 훈련을 위해 자기주장 철학의 원리, 자기주장권에 대해 이해하도록 교육했으며 비주장적 태도와 공격적 태도 그리고 자기주장적 태도에 대한 차이점을 서로 토의하도록 했다. 자기주장 훈련을 위해 집단 성원들은 역할 놀이를 하였고 비디오 촬영을 해서 다른 집단 성원들

의 피이드백을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적, 비언어적인 비주장적 태도를 인식하고 자기주장적인 태도를 학습하도록 했다. 집단 성원 중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집단 전체에서 시연했고 집단 성원들이 조언을 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집단 성원들은 다른 집단 성원에게 구체적인 행동과 표정 등에 대한 언급을 적극적으로 해주었다. 즉 '남의 입장을 듣고 만 있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말하라' '딴 곳을 보고 얘기하지 말고 날 쳐다보면서 말하도록 하라'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말하라' 등의 조언이 있었다. 그 후 다시 이 조언을 참고로 문제를 제시했던 성원이 다시 자기주장의 시연을 했고 비디오로 촬영하여 전의 것과 비교하며 달라진 점 등에 대해 토의했다. 시연을 했던 성원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음 모임까지 「자기주장법」을 적용해 보는 과제를 부여했다.

5회에서는 지난주의 「자기주장」의 적용에 대한 경험을 토의했다. 지난주 역할 놀이에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은 집단 성원은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친구(문제를 만든 장본인)를 찾아가 자기주장을 할 수 있었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편해졌다고 표현했다. 특히 가출실직자 집단에서는 책3)을 팔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경험을 많이 발표했다. 성원들이 경험한 긍정적인 방법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서로간에 회의 절차를 통해 「자조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회의 절차에 대해 설명했고 집단 성원 전체가 한 집단으로 「자조집단 형성」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집단이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집단 성원이 회의 경험을 하게 했다. 가출실직자 집단은 이미 자립단이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서로간에 의사를 존중해 주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은 학습할 수 있었다.

재가 실직자 집단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조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1개월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상호 격려도 하자며 연락 책임자도 선정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집단 성원들은 주소도 서로 교환했다.

매회기의 마지막에는 긴장의 완화를 위해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음악을 듣고 집단 성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시를 함께 낭송했다. 또한 집단에의 참여와 다음 모임 때까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성원들간에 서로 격려해 주는 「격려의 박수」를 하고 매회의 집단 활동을 마쳤다.

마지막 회기의 끝에는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집단 성원들이 집단에 대해 서로 찬사를 보내고 평가했다. 평가는 자유로운 언급과 개방식 질문 형식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 성원들은 집단에서 배운 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했다.

- (1) 집단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기술)을 상세히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3) 이 연구의 가출 실직자들은 자립을 위해 잡지책을 판매하고 있다.

- (2) 이 집단에 참석한 것에 매우 만족한다.
- (3)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4) 합리적인 대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집단 성원들은 정부나 사회에 대해서도 요청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녀들이 아버지의 실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 학교에서 현재의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해 교육해 주기 바란다.
- (2) 정부나 기업에서 주관하는 취업 박람회의 형식적인 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취업 박람회는 선전이 더 큰 목적인 것 같은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좀더 구체적으로 취업을 안내해 주기 바란다. 구직자 중심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
- (3) 아내들<sup>4)</sup>을 위한 집단 모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을 위한 집단도 운영해 달라.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직자와 그의 가족들이 위기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의 구성과 그 효과성을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문헌 연구와 우리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집단에 실시하였다. 실직자 집단은 재가 실직자와 기출실직자로 구성된 두 집단이었으며 5회의 모임으로 진행되었다. 집단 성원들의 구직 상황에서의 자기주장 정도, 가족관계, 우울 증상에서의 향상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프로그램 참가로 인하여 재가 실직자의 경우는 구직 상황에서의 자기주장 정도가 향상되었고, 기출실직자의 경우는 가족관계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여 줬다.

위의 결과는 기존 연구와 공통되는 점을 보이고 있다. 즉, Caplan 등(1989)의 연구에서도 자기주장 훈련으로 실업자의 구직 행동이 향상되었으나, 구직 동기 면에서나 정신 건강 영역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재가 실직자의 경우는 자기주장 정도, 가족관계, 우울증상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향상되었으나, 구직 행동 시의 자기주장 면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인 것은, Caplan 등(1989)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

4) 실직자 집단 성원들의 아내들과의 전화 통화 면담: '우리도(아내)도 마음이 답답하고 막연한 심정이다. 그동안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왔는데 수입이 없으니 결국 우리(아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현실이 스트레스가 된다. 매스컴 등에서는 모두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용기를 주고 지지해 주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다. 남자들만이 힘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행동주의적 개입 방법은 그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는데 비하여 다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입 방안들은 행동주의적 개입 방법들보다 그 효과가 더디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piegler & Guevremont, 1983; 13-25).

가출실직자 집단에서는 자기주장 정도와 우울증상에서 프로그램 참가 전과 후에 별 차이가 없었다. 일부 집단 성원들은 행사 시에 경찰의 가두 단속으로 인해 경찰과 마찰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때 거칠게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때 더 효과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상대방이 세계 나올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표현하면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한 자기표현이 결국에는 더욱 효과적이라는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합리적 자기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어내는 경험을 적게 하였던 것 같다. 예를 들면 노점 단속 시에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투쟁이나 과격한 대응을 했을 때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했고 따라서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두 번째 집단인 가출실직자들은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가족관계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는데, 재가 실직자가 향상을 보였지만 유의미한 차이의 향상이 아니었던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고 자신의 가족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수정했으나, 재가 실직자는 이 방법을 실제로 집에서 사용할 때 여전히 스트레스 속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지 않은 가족들과 상호 작용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양방향적인(two-way) 것이므로 프로그램 참가로 인해 얻게 된 태도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태도의 효과가 감소되는 점이 있을 것이다. 반면, 가족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갖게 된 가출실직자들은 사후 검사 시기까지 실제에서 적용할 기회가 매우 적었으므로 사후 검사에서 자신의 변화만 그대로 표현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는 가족 치료나 부부 치료는 가족 중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할 때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고 보는 가족 치료자의 견해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가족 변화를 가져오려면 실직자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양적인 분석과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좀 더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집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변화를 중심으로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양적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효과 이외에도 집단 성원들에게서 여러 가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문제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을 구성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즉, 실직으로

인해 많은 실직자가 음주를 과하게 하여 알코올 중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가정 폭력이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김재엽, 1998). 그러므로,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실직자 집단, 가정내 폭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 등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그들을 위한 집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실직 후 경제적인 압박감이 적은 실직자가 갖는 문제는 구직 활동을 하는 실직자의 문제와는 다른 면이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내용은 실직자의 욕구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문제 중심으로 집단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대상으로 또 여성 실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집단 지도자는 강의식의 교육보다는 집단 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조별 토의, 역할 놀이, 역할 시연, 발표, 시청각 자료의 활용 등이다.

넷째, 집단 성원들은 개인들이 갖는 특수한 문제들로 인해 개별 상담 등을 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때도 필요시 개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에는 지적되어야 할 제한점들이 있다. 재가 실직자 집단과 가출실직자 집단을 각각 한 집단씩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 각 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또한, 두 집단의 성원 수가 적어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며 지속해서 발생될 실직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사회적 개입 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여 가족해체 등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험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실시는 의미 있다고 본다.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실직자와 그의 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위기개입 서비스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유순, 이영분. 1998. "실직자를 위한 위기개입: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실직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집, pp. 83-104.
- 김재갑, 김은미, 이선이, 최우영. 1998. 실업 스트레스의 변화.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 김재엽. 1998. 실직자 가족의 위기와 사회복지.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3회 학술세미나집. pp. 105-110.
- Abbott, A. A. 1995. "Repetitive life patterns and coping with the crisis of unemployment." In A. R. Roberts (Ed.), *Crisis intervention and time-limited cognitive treatment* (pp. 188-214). CA: Sage Publications.
- Beck, A. 1968. *Love is never enough*. NY: Harper & Row Publishers.
- Beckett, J. O. 1988. "Plant closings: How older workers are affected". *Social Work*. 33(1). pp. 29-33.
- Biegel, D. E., J. Cunningham, H. Yamatami & P. Martz. 1989. "Self-reliance and blue-collar unemployment in a steel town." *Social Work*. 34(4). pp. 399-406.
- Caplan, Robert D., Amiram D. Vinokur, Richard H. Price & Michelle van Ryn. 1989. "Job seeking, reemployment, and mental health: A randomized field experiment in coping with job los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4(5). pp. 759-769.
- Catalano, R., D. Dooley, R. W. Novaco, G. Wilson & R. Hough. 1993. "Using ECA survey data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layoffs on violent behavior."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44(9). pp. 874-879.
- Celentano, D. D. & M. E. Eensminger. 1990.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psychological distres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0(4). pp. 469-477.
- Corcoran & Fischer. 1987.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A sourcebook*. New York: Free Press.
- Cramer, S. H. & M. A. Keitel. 1984. "Family effects of dislocation, unemployment, and discouragement." In Hansen, J. C. & Cramer S. H. (Eds.). *Perspectives on work and the family* (pp. 81-93). Rockville, MD: Aspen Systems Corporation.
- Diekstra, R. F. W. 1989. "Suicide, depression and economic condition." In Ruut Veenhoven (Ed.), *Did the crisis really hurt? Effects of the 1980-1982 economic recession on satisfaction, mental health and mortality* (pp. 259-283).

- Donovan, R., N. Jaffe & V. M. Pirie. 1987. "Unemployment among low-income women: An exploratory study." *Social Work*. 32(4). pp. 301-305.
- Ellis, A. 1996. *Better deeper, and more enduring brief therapy: The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approach*. NY: Brunner/Mazel.
- Fineman, S. 1983. "Counselling the unemployed: Help and helplessnes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11(1). pp. 1-9.
- Finley, M. H. & A. T. Kee. 1981. "The terminated executive: It's like dy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6). pp. 382-384.
- Golan, N. 1978. *Treatment in crisis situations*. NY: Free Press.
- Gordon, T. 1974. *PET in action*. New York. Wyden.
- Grayson, J. P. 1983. "The effects of a plant closure on the stress levels and health of workers' wives: A preliminary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 pp. 221-225.
- Hildebrandt, H. 1994. "Mental disorders and economic crisi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dmission into the psychiatric hospitals of Prussia between 1876 and 1906." *Social Psychiatry and the Psychiatric Epidemiology*. 29. pp. 190-196.
- Hooker, C. E. 1976. "Learned helplessness." *Social Work*. 21(2). pp. 194-198.
-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L. 1990. "Unemployment and child abuse."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1. pp. 579-586.
- Keefe, T. 1984. "The stresses of unemployment." *Social Work*. 29(3). pp. 264-268.
- Kieselbach, T. & A. Lunser. 1990. "Psychosocial counseling for the unemployed within the framework of trade-union oriented work."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7(4). pp. 91-207.
- Krystal, E., M. Moran-Sackett, S. V. Thompson & L. Cantoni. 1983. "Serving the unemployed."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4. pp. 67-76.
- Gordon, T., 1974.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Plenum Book New American Library, New York.
- Landau, S. G., D. L. Neal, M. Meisner & J. Prudic, J. 1980.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laid-off workers." *Journal of Psychiatric Treatment Evaluation*. 2(1). pp. 5-12.
- Leana, C. R. & D. C. Feldman. 1990. "Individual responses to job loss: Empirical findings from two field studies." *Human Relations*. 43(11). pp. 1155-1181.
- Leana C. R. & D. C. Feldman. 1992. *Coping with job loss: How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 communities respond to layoffs*. NY: Lexington Books.
- Macarov, D. 1988. "Reevaluation of unemployment." *Social Work*. 33(1). pp. 23-28.
- Madonia, J. F. 1983. "The trauma of unemployment and its consequences."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64. pp. 482-488.
- Maida, Carl A., Norman S. Gordon & Norman L. Farberow. 1989. *The crisis of competence: Transitional stress and the displaced worker*. NY: Brunner/Mazel.
- Mallinckrodt, B. & J. Bennett. 1992. "Social support and the impact of job loss in dislocated blue-collar work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4) pp. 482-489.
- Mallinckrodt, B. & B. R. Fretz. 1988. "Social support and the impact of job loss on older professional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3). pp. 281-286.
- Platt, S. 1984. "Unemployment and suicidal behavior: A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9(2). pp. 93-115.
- Price, R. H., D. S. Fridland, J. Choi & R. D. Caplan. 1997. "Job loss and work transitions in a time of global economic change." Paper presentation at the 1997 Claremont Symposium on Applied Social Psychology.
- Pryor, R. G. & R. T. Ward. 1985. "Unemployment: What counselors can do about it."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22(1). pp. 3-17.
- Raporport, L. 1962. "The state of crisis: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Social Service Review*. 36. pp. 211-217.
- Reynolds, S. & P. Gilbert. 1991.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Interactive effects of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actors on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pp. 76-88.
- Roberts, A. R. 1995. *Crisis intervention and time-limited cognitive treatment*. CA: Sage Publications.
- Rose, S. D. 1989. *Working with adults in group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Slaikew, K. A. 1990. *Crisis intervention: A handbook for practice and research*. MA: Allyn & Bacon.
- Siegel, S. & N. J. Castellan. 1988. *Nonparametric statistic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McGraw-Hill.
- Spiegler, M. D. & D. C. Guevremont. 1983. *Contemporary behavior therapy*.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Steinweg, D. A. 1990. "Implications of current research for counseling the unemployed."



-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27. pp. 37-41.
- Sunley, Robert & G. William Sheek. 1986 *Serving the unemployed and their families*. Family Service America, Milwaukee, WI.
- Tanay, E 1983. "Work deprivation depression." *The Psychiatric Journal of the University of Ottawa*. 8(3). pp. 139-144.
- Thomas, L. E., E. McCabe & J. E. Berry. 1980. "Unemployment and family stress." *Family Relations*. 29(4). pp. 517-524.
- Tiggemann, M. & A. H. Winefield. 1984.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the mood,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depressive affect of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7(1). pp. 33-42.
- Turner, J. B., R. C. Kessler & J. S. House. 1991. "Factors facilitating adjustment to unemployment: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4). pp. 521-542.
- Vosler, N. R. 1994. "Displace manufacturing workers and their families: A research-based practice model."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75(2). pp. 105-115.
- Waldinger, R. J. 1990. *Psychiatry for medical stud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Press.

Abstract

**Effectiveness of a Crisis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Unemployed**

Lee, Young Boon · Kim, Yu Soon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 crisis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unemployed. The intervention included understanding one's experiences of unemployment and new dynamics of one's family, improving family relations, decreasing depressed mood through cognitive restructuring, assertiveness training, and job skill acquisition. Ss were 14 recently unemployed adults from Seoul area. A pretest and a posttest were administered. The effect of the program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assertiveness, family relations, and depressed mood. The intervention yield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assertiveness for the unemployed who live with their families. The homeless unemployed have show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in family relations. Qualitative analyses on the group processes also have been conducte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practice are discussed.

Tel : 0441-840-3453

Fax : 02-548-8536

E-mail : yblee09@netsgo.com

Tel : 02-610-4229

Fax : 02-683-8858

E-mail : yskim@blue.skhu.ac.kr